

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이다.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,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린 인물이다. 사무엘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도 있다. 대부분 성장 과정에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큰 인물들로 자라는 데, 사무엘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. 고생을 한 것이 있다면 한가지다. 엄마 한나의 서원 때문에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가서 성전의 심부름을 하며 자랐다는 것이다. 그러나 어린 시절 제 사장의 축복과 지도 아래 미래 지도자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특권이였다.

그런 축복과 훈련을 받아가면서 사무엘은 시대적인 지도자로 세워진다. 성경 역사 속에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. 그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가를 강조한 세 구절이 있다.

첫째, “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랐더라”(본문 21절).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랐다는 말이다.

둘째, “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”(삼상2:26).

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도 받았다는 것이다(눅2:52).

셋째, “사무엘이 자랐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”(삼상 3:19).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다.

이 세가지를 합쳐서 나오는 것이 영적 씨앗의 축복이다. 우리 교회에서든지, 현장에서든지, 내 가정에서든지, 이런 인물 한 사람만 세울 수 있다면 너무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.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?

1.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,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.

그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다(창12:1-3)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축복을 누릴 자라고 했다(갈3:29).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갔으며,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?

1)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,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?

네 본토, 친척,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다.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흘러온 저주와 운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영적 배경을 바꾸라는 뜻이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영적 배경이 바뀐 것이다. 모든 운명과 저주와 지옥은 끝났고,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.

2)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5가지 축복의 언약이 있다.

- ①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다. 근원적 축복이다. 모든 것의 근원인 하늘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.
- ②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다. 대표적 축복이다. 우리 개인이나 가정만이 아니다. 100년 전에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가득했던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고, 지금은 창대한 축복을 받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것이다.
- ③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. 후대의 축복, 기념비적 축복이다. 교회도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후대가 일어나야 한다.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, 씨앗 스쿨, 램넨트 운동이 중요한 것이다. 미래를 보는 것이다.
- ④ 너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. 시대를 이끄는 시대적인 축복,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
- 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한다고 했다. 흑암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이 응답과 축복을 막을 수 없다. 불가항력의 축복이다. 어려움 다시와도 믿음으로 계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면 된다.

2. 그 언약이 내 인생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서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한다.

이면계약이라는 내용에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있고, 나의 헌신이 있고, 나의 서원이 있다.

1)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.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다.

너무 오랫동안 내 상처,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이 내 기준, 내 수준, 내 표준이 되어 버렸다.

내 생각의 기준, 각인된 것을 바꾸어야 한다. 그 방법이 롬10:17이다.

그래서 복음의 말씀,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 듣는 것이다. 구약에서는 삼변제의 원리이다.

어느 날 거기서 나와 현실과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온다. 작은 믿음만 나와도 그 결과는 엄청나다(마17:20)

2) 헌신은 무엇인가? 내가 구원받은 것과 주신 응답들을 감사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이다(예배, 시간, 재능, 헌물)

그 헌신의 제사를 구약에서는 소제라고 한다. 감사의 소제, 감사의 헌신이 나오는 만큼 더 큰 응답이 나온다.

한나 부부는 사무엘을 주께 드린 것이다. 우리가 뭔가를 헌신할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(고전15:58)

3) 서원은 무엇인가?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, 중요한 헌신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.

깊은 어려움에서도 할 수 있고,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도 할 수 있다.

자녀 문제로 깊은 갈등하던 한나가 이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다. 바울은 로마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보면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다(행18:18). 금식 기도도 서원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.

구약에서는 이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했다. 임직 대상자들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. 화목제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. 받은 축복에 따라 짐승의 제물이 결정되고, 그 제물은 본인이 죽어야 한다.

3. 그 축복과 응답의 당사자 사무엘이 받은 훈련이다.

누구도 훈련이 없이는 쓰임 받을 수 없다.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, 중요하게 쓰임 받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

1)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산 사람이다. 집 나와서 성전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.

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. 예배 중심으로,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.

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광야(세상)를 통과할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다.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.

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고,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(복음 땅대)

2) 늘 언약계를 지키며 산 사람이다(삼상3:3).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다.

다 준비해주신 축복인데, 늘 환경, 현실에 두려워하고,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게 해서 영적 축복을 놓치게 한다.

더 이상 속고 뺏기고 살 수는 없다.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, 승리해서 지키라는 것이다(기도 땅대).

실제로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블레셋도 무너졌다(삼상7:5-10)

3)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. 미션을 깨닫는 시간이다(전도와 선교 땅대).

분명히 나를 통해, 우리 가족을 통해,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(그것이 천명, 소명, 사명이다)

지난 12년간의 의료 선교도 이 천명, 소명, 사명 붙잡고 갔고, 올해도 가는 것이다.

결론-사무엘 같은 한 명의 제자, 증인, 램넨트가 중요하다.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 받을 한 명 일수도 있고, 12제자처럼 12명일 수도 있고, 70인 제자처럼 70인일수도 있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. 그 속에 나 개인이 있고, 우리의 가족과 후대가 있고,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한다.